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적극 대응

전주시보건소,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 강화... 기침예절 실천·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최근 급성 호흡기 감염증 표본감시기관에서 신고된 코로나19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4주 동안 5.1배(7.1주 91명 → 7.4주 465명) 늘었다. 이중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의 65%에 해당된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감염 취약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감염병 예방수칙을 집중홍보하고 표본감시기관에 대한 유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협조 및 집단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투여 기준에 해당 할 경우(연령 60세 이상 등)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다. 약 조제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 수령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5만원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현재 전주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은 207개소(완산구 110개소 / 덕

진구 97개소), 약을 조제하는 담당기관은 88개소(완산구 50개소 / 덕진구 38개소)이다.

코로나19 증가 추세에 따라 전주시보건소는 담당기관을 추가 지정했으며 담당기관 목록은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는 코로나19의 증가 추세를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밀폐·밀집 환경이 조성되는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기침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유행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백신이 10월 도입 예정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등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현재 코로나19 발생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행 확산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 나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10개 단체 등과 기금 마련 지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9일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입주식을 개최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대상 가구는 연탄 난방을 사용하는 주거 취약 가구로 건축된 지 100년이 넘는 노후주택에서 치매 증상의 노모와 홀로 생활이 어려운 중년의 자녀가 거주했다. 이 대상 가구는 경제적 상황이 여의찮아 주택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생활해 왔다.

이에 주거복지센터는 대상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전주시역 건축사회'에서 관내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해 지정한 후원금과 함께 전주시연탄은행,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시민에서 집수리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했다.

(주)수도과 태신, 온누리클럽, 주택관리공단 KOHOM봉사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가정형Wee센터와의 자원 연계를 통해 자재 지원 및 폐기물 환경 정리, 노후 전기 교체, 가전제품 지원 등의 후원과 재



능기부를 받아 집수리에 필요한 자원을 모집해 진행했다.

센터는 이번 주거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가구를 상담을 통해 발굴해 집중 사례관리를 하며 집수리를 추진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오은주 센터장은 "한 개 기관의 힘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한다는 건 인적, 물적으로 힘들어 있지만,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지닌 자원을 모으면 문제를 훨씬 쉽고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여러 자원과 연계하여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일본 도시재생 전문가들,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찾았다

사례조사 연구 위한 인터뷰 진행

'성매매 집결지'를 예술마을로, 폐공장을 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전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 전문가들이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지난 9일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학교의 '나카니시 마사히코(中西正彦)' 도시사회문화연구과 교수와 고쿠가쿠인 대학의 후지오카 '마리코(藤岡麻理子)' 관광도시계획학부 준교수 등 교수진 4명이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나카니시 교수 등 일본 연구진은 한국과 대만, 일본의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역사성 있는 우수 도시를 선정해 역사·문화를 살리는 지역 활성화 사례와 행정의 지원정책에 대한 조사 및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꼽히는 선미촌 예술마을과 팔복예술공장 등 주요 사례와 추진현황 등에 대한 인터뷰를 위해 전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학교의 '나카니시 마사히코(中西正彦)' 도시사회문화연구과 교수와 고쿠가쿠인 대학의 후지오카 '마리코(藤岡麻理子)' 관광도시계획학부 준교수 등 교수진 4명이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소영식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허갑수 전주시 도시정비과장은 일본 연구진을 상대로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는 내용의 현황소개를 시작으로 전주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는 행정과 함께 재생사업 정책 대응, 주민참여 및 교육 등 도시재생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핵심 지원과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 완료 후 거점 시설 모니터링과 후속 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일본 연구진의 전주 방문은

한국지역진흥연구원의 기획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인 이기배 박사는 "전주시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전주형 지역 활성화 모델을 일본 연구진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전주시 사례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허갑수 전주시 도시정비과장은 "모처럼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해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전주시도시재생센터와 함께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면서 "일본의 사례도 함께 알아볼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연구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대학교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이 뜻을 모아 지난 4월 설립한 단체로 지역발전 정책 및 실천적 지역 활성화 전략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 효자4동 자율방재단, 폭염 피해 예방 예찰활동 나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자율방재단(단장 이진열)에서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 발생 등 폭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예찰활동에 나섰다.

이날 방재단원들은 관내 과수농가 등을 찾아 시원한 생수 등을 전달하

며, 폭염 특보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행동 요령 안내에 힘썼다.

이진열 단장은 "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 어르신들이 많아, 단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면서 열사병 예방과 폭염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숙희 동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율방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예찰활동에 나서 애써주시는 데 감사하다"라며, "등에서도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대병원, 소아 당뇨 환우 위한 '소담소담 캠프'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전북교육청과 함께 소아 당뇨 환우들을 위한 '호남 소담소담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캠프는 소아 청소년 당뇨 환우들이 당뇨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배워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8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전주 시그니처 호텔에서 진행된 '소담소담 캠프'에는 약 3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의료분과, 간호분과, 치과분과, 영양분과, 사회복지분과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선생님들과 할당 측정, 인슐린 투여, 저혈당 관리, 건강한 식단 관리 등 실생활에서의 할당 관리 요령을 배웠다. 또한, 스포츠 활동, 인 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은 앞으로 소아청소년 당뇨 환우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아 당뇨 환우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